

경제

“회생의 길 열었다”... 지역민 ‘안도의 한숨’

■ 금호타이어 임단협 가결 의미와 과제

채권단 긴급자금 수혈... 공장가동 순조 노노 갈등 해소·시장 신뢰 회복 속제로

금호타이어가 회생의 불씨를 살렸다. 노사가 1차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지난 18일 다시 살려낸 뒤 조합원 투표를 거쳐 22일 최종 서명한 것이다. 노조는 또 구조조정 동의서도 채권단에 제출했다.

이로써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회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됐다. 지역민들도 임단협 체결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 2차 합의안 왜 찬성했나 = 노사 1차 합의안 부결로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등 회사가 위기상황에 몰리면서 ‘공멸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합원 사이에 확산됐다. 또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손을 떼겠다는 채권단의 최후 통첩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합의안 부결 직후 사측이 189명에 대해 해고를 통보하고, 도급 대상자 1006명에 대한 해고일도 다가오는 등 해고가 현실화된 점도 압박요인이 됐다. 이 밖에도 기업신뢰도 추락과 생산 차질에 따른 200여 협력업체의 피해, 5개월째 임금

체불, 자본 완전 잠식 등도 반발 표심을 누그러뜨린 것으로 분석된다. 나케 수준의 회사 성적표가 “대안이 없다”는 여론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 임단협 체결의 의미 = 우여곡절 끝에 노사가 임단협 협약서에 서명하면서 광주 경제의 대들보인 금호타이어는 회생의 시급성을 늦게 됐다. 법정관리나 공장 폐쇄 등 우려를 벗고 회생을 위해 노사의 자발적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80여 협력업체도 한시를 늦게 됐다. 남양건설·새한철강의 법정관리 신청 등 흑한의 지역경제에 모처럼 온기를 전해줬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경제계가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노사가 산통 끝에 자율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지역경제 회생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사가 구조조정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채권단의 긴급 자금이 수혈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 지원으로 원재료 수급도 원활해지면서 일부



금호타이어 노사가 협상 시작 81일만인 22일 오후 임단협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별관에서 김중호(오른쪽에서 두 번째) 대표이사(노사 1차)와 노조 대표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들이 임단협에 조인하고 ‘노사평화공동선언’을 채택한 뒤 악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중단됐던 공장 가동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밀린 임금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 남은 과제는 =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1차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자 사측은 해고로 강행했고, 이로 인해 해고 대상자들은 크나 큰 상처를 안게 됐다. 이들을 평가한 회사 간부들과 갈등도 우려된다. 노사는 이들의 상처 치유에 노력해야 한다.

또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노노 갈등도 해소해야 한다. 특히 강경파로 알려진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현장 대책위원회’가 23일까지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과제다. 금호타이어는 다음 주부터 전국 권역별 신상품 설명회를 시작으로 유통점 캠페인 및 고객 이벤트 등의 다양한 행사를 벌여 시장 신뢰회복과 고객 만족을 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노사

가 화합해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 속에서 워크아웃을 조기에 졸업하고 경영력 강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합의사항에 대한 차질 없는 실천과 노사의 공동 노력을 통해 워크아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회사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조업 생산·수출 증가세 지역경제 든든한 ‘버팀목’

한은 지역본부 경제동향

광주·전남지역 경제가 제조업 생산과 수출 증가에 힘입어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은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발표한 ‘최근의 광주·전남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2월 제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7% 증가했다. 제조업 업황BSI(기업경기실사지수)도 전월보다 6포인트 상승한 97을 기록했다.

2월 중 대형 소매점 판매도 전월의 8.5% 감소에서 34.1% 증가로 큰 폭으로 늘어났고 3월 중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도 전월의 26.8%에 이어 26.1%로 증가하는 등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 3월 중 수출은 광주의 가전(68.2%)과 반도체(66.7%), 자동차(27.9%), 전 남의 석유제품(125.5%), 철강제품(71.8%) 등의 강세에 힘입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4% 증가한 가운데 전월의 3.3% 감소에서 14.2% 증가로 전환했다.

고용시장도 광주지역 비농림업 취업자수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3만6900명이 늘어났고 실업률은 전월의 3.0%에서 2.8%로 하락했다.

3월 중 소비자물가는 2.6%로 전월(2.8%)에 이어 오르며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도 0.1% 상승해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미분양 크게 줄었다

지난달 3457가구... 감소율 11.2% 전국 최고

양도세 감면 등 효과

광주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등록세 감면,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아파트 주택사업승인 신청이 거의 없고, 건설경기 약화 등으로 신규 아파트 건립이 지지부진한 점도 한 몫하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2008년 11월 이후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매달 평균 3.9%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광주는 11.2%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달 말 현재 광주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3457가구로 지난 2006년 8

월 이후 최저치로 줄었고, 2008년 11월 최고치를 기록했던 1만3277가구의 74%에 해당하는 9820가구가 감소했다.

광주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2004년 4796가구에서 2005년 3323가구, 2006년 3772가구, 2007년 7205가구 등으로 2008년 이전 평균 물량과 비교하면 회복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구 670가구, 남구 1019가구, 북구 786가구, 광산구 976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수원택지구는 아파트 21개 단지 9936가구 가운데 지난달까지 저층 등 148가구를 제외한 98.5%가 분양됐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금호, 현명한 선택이었다” 대형 건설사 7곳 철근 못받는다

광주상의, 노사 합의안 가결 적극 환영

철강업체, 가격인상 협상 결렬 납품 중단

광주상공회의소는 22일 “금호타이어 노사가 상생협력으로 경영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게 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날 성명에서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돼 금호타이어가 법정관리나 파산 등으로 처당할 것을 우려해”라며 “하지만 노사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합의안이 또다시 부결되면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

고 선택한 현명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처럼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서 힘을 모아 노력할 때 채권단과 정부에서도 지원이 따를 것이고 위기 극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호타이어의 빠른 회생이 중소기업체와 지역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점을 잊지 말고 경영 정상화에 온갖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해 들어 두 차례 인상된 철근 가격을 놓고 건설업체와 철강업체들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대형 건설사 7곳에 철근 공급이 중단됐다.

22일 건설·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과 동국제강 등 국내 대형 철강업체들은 이번주부터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등 대형 건설사 7곳에 철근 납품을 전면 중단했다. 이들 7개 건설사와 30여개 대형·중형 건설사의 자재구입 관련 협의체인

대한건설사재적협의회(이하 건자회) 관계자들이 20일 현대건설, 동국제강 등 2대 철근 제조업체를 방문해 가격 인상분 반영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과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사들은 철근 가격(고장력 10mm, 현금 기준)을 1달간 지난해 말 69만1천원에서 올해 2월 74만1천원으로 5만원 올렸고 4월 초 79만1천원으로 또다시 5만원 인상했다.

Table with 2 columns: Index Name and Value. Includes 코스피지수 (1,739.52), 코스닥지수 (516.47), 금리 (국고채 3년) (3.77%), and 원·달러 환율 (1,108.30).

산단 공공시설·복지구역

신재생에너지 설비 허용

산업단지 내의 공공시설과 복지구역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둘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할 경우 공공시설구역 및 복지구역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칙적으로 5년 이상으로 돼 있는 산업용지와 공장의 임대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임차인이 희망할 경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지매매, 건물매매, 나주남평 토지매매. 위치, 면적, 용도, 평당금액 등 상세 정보 제공.

현대공인중개사. T. (062)371-1900. 010-2006-0115. 광주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토지매매, 건물매매, 상가 및 목욕탕 건물매매 등 서비스.

부동산경매전문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1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